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¹⁾

유 은 영*

☞ 유럽의 문화 네트워크 조직인 CAE에선 2019년부터 농촌지역에서의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캠페인 운동을 시작. 농촌지역의 문화 진흥을 통해 ‘사회적 통합, 살아있는 문화의 진흥,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 ☞

1 유럽에서의 농촌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

- 최근 유럽의 예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네트워크 조직에서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 관련 조직, 예술인, 활동가, 정책입안자,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조직인 유럽 문화 행동 조직(Culture Action Europe, CAE)에선 2019년부터 농촌지역에서의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캠페인 운동을 시작함.
 - 이 운동은 유럽연합이 정책적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문화 진흥과 농촌문화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농촌지역의 문화 진흥을 통해 ‘사회적 통합, 살아있는 문화의 진흥,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 일환으로 2019년 ‘보이는 것을 너머(Beyond the Obvious)’ 컨퍼런스를 개최함.
 - 2020년엔 CAE와 유럽의 지역사회 문화센터 간의 협의조직인 유럽 문화센터 네트워크 조직(The European Network of Cultural Centres, ENCC), 500여 개 공연예술 조직의 연합체인 국제 현대공연예술 네트워크 조직(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IETM)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의 목소리(Voices of Culture)’라는 회의를 진행함. 유럽 농촌 문화의 역할과 농촌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EU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러한 노력은 문화예술 영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정책입안자와 리더들에 게도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본고는 IETM 단체에서 2020년에 발간 ‘ARTS In Rural Area’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wordtime84@krei.re.kr)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2 농촌지역의 예술 - 변화의 동력

- 예술이 농촌의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예술이 심미적 추구, 문화유산의 감상, 즐거운 여가 시간의 제공 등의 역할이 아닌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농촌의 인구소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문화예술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 예술은 창조성,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 예술이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속성들은 전략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는 지역사회가 지녀야 할 핵심적인 요소임. 이러한 속성의 부재는 지역사회에 인구감소, 사회적 분열, 구성원의 수동성, 좌절 등 수많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술 프로젝트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유용하다는 점이 증명됨.
 - 참여적 예술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사회에 창조성을 이끌고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이를 통하여 각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각 지역의 사회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맥락에 적합한 발전 방안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줌.
 - 예술은 농촌지역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도 함. 현대 예술 프로젝트는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유용함.
 - 지역의 설화, 유산 등도 시대에 맞게 재해석과 변화가 필요함. 현대 예술 프로젝트는 전통문화를 단순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고,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재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농촌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자원이 됨.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예술인이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유럽 농촌지역에서 진행된 참여적인 예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며, 예술인의 방문 및 거주를 통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3 [사례1] 지역주민 주도의 영화 제작 프로젝트

- 프리랜서 영화감독이자 예술가인 에스미타 쉬리시는 2019년에 네팔에서 ‘토착민 주도의 영화 제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이를 계기로 네팔의 토착민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기획됨. 네팔 영화 협의회에 실무적인 도움을 받고, 영국의회를 통해선 자금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함.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네팔 토착민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함. 토착민 공동체는 네팔 정부의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함.
-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토착민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이들이 함께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지역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임.
 -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토착민의 문화와 관습이 잘 스며들면 그 자체로 문화적 가치가 높음.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존재가 아닌 세상과 연결된 공동체로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됨.

| 그림 1. 토착민 주도의 영화제작 현장 |



자료: ARTS IN RURAL AREAS, IETM (2020)

- 이 프로젝트는 주로 젊은층의 토착민을 영화제작에 참여시키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를 들어, 네팔의 타나훈(Tanahun) 지구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함. 1차 워크숍에선 청년층의 주민들에게 영화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교육을 진행함. 2차 워크숍에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 교육함. 1차 교육 대상자와 2차 교육 대상자들이 협업하여 최종적으로 영화를 제작함.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 영화제작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교육하는 것임.
 - 스토리텔링 교육 워크샵에선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함으로써 편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함. 그 후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나 설화, 현재의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회를 얻게 됨.
- 125개의 주민조직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단편 영화를 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함.

4 [사례2] 마을 박물관을 거점으로 한 농촌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 폴란드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올레시니차(Olesnica) 시에 1만 2,000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보구스지체(Boguszyce)라는 작은 농촌 마을이 있음. 2013년에 이 마을에 있던 작은 행사장을 지역의 이야기 박물관으로 만듦.
 - 마을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청년층을 이야기 수집자 및 아이템 제작자로 고용하여, 마을의 의미있는 물건, 책자, 마을 전통 요리법 등을 수집 및 정리하여 박물관에 전시함.
- 마을 박물관을 거점으로하여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함.
 - 지역 박물관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됨. 이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박물관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함.
- 2016년엔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극단 ‘모먼트’를 창단함. Moment는 7세~77세의 전 세대의 주민들이 단원으로 참여함. EU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민을 위한 유럽’에서 진행되는 국제 프로젝트인 ‘세대를 잇다(Bridging Generations)’ 사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극단을 운영함.
 - 연기자 단원은 모두 아마추어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단의 감독은 전문 연극 연출가가 맡음. 연극은 마을 박물관에서 수집한 지역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함.
 - 마을 극단 프로젝트의 3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문 예술인과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냄. 둘째, 지역사회 유산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농촌마을의 ‘상징자본’²⁾ 형성에 기여함. 셋째, 지역주민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줌.

2) 상징자본이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적, 지위적 상징으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지식, 승인, 인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징자본을 가지고, 특정집단이 명예, 위신, 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정의함.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 마을 박물관을 거점으로 진행된 지역사회의 또 다른 예술활동으로 2013년에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버스 정류장에 벽화를 그린 작업도 대표적임.
 - 지역의 예술인들과 리더들이 지역 개발 예산을 가지고 마을의 낙후된 버스 정류장 시설을 예술적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기획함.
 - 마을 박물관에서 수집한 마을의 이야기와 전통문화 유산을 벽화의 소재로 함.
 -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도움을 주고,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벽화를 그림.
 -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됨.
 -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2019년엔 올레시니차 시 내에 있는 18개 마을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짐.

5 [사례3] 농촌주민과 전문 예술인의 협업을 통한 전통무용의 재탄생

- 2011년 포르투갈에서 진행된 ‘여행(The Journey)’라는 이름의 사업은 농촌지역의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임.
 - 농촌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댄서와 전문 현대무용 댄서가 함께 참여함. 전문 댄서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전통무용을 배우고, 반대로 현대무용을 주민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서로의 연결점을 이끌어냄. 최종적으로 지역의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의 콜라보 공연을 진행.
 - 4세에서 80세까지 50여 명의 농촌주민이 참여함. 이들 중 아무도 현대무용을 접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음.
-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농촌주민과 전문 예술인 간의 소통이었음. 예술인들이 지역의 전통무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전통무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중요했음. 서로 간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음.
- 주민들은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 하지만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콜라보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된 후엔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더 커졌고, 지역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커짐. 또한 전통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으로 보여줌.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업 외 소득 활동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노인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아마추어 무용수로서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음.

| 그림 2.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 현장 |



자료: ARTS IN RURAL AREAS, IETM (2020)

5 [사례4] 예술인과 농촌주민이 함께하는 예술활동

- '미팅스(MEETINGS)'는 덴마크의 윌란반도의 농촌지역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 영상제작 및 공연 프로젝트임.
 - 현대 예술인과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 마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영상과 공연작품을 만들어감.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들과 농촌주민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작 활동 진행
- 미팅스 프로젝트에는 비영리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각 단체들이 특정 농촌 마을과 연계하여 작품활동을 진행함.
 - ET4U라는 유럽의 비영리 예술단체의 경우, 영상과 공연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농촌 마을의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국제적인 예술인들은 마을에 파견함. 예술인들의 도움으로 농촌주민들은 마을의 현안과 마을에서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과 공연작품을 만듦. 마을의 헛간, 마구간, 빈집 등 전형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작품활동이 이루어짐. 완성된 작품은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주민들뿐만 아니라 덴마크 내의 예술인, 해외 예술인,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 등에게 선보임.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 미팅스 프로젝트는 2017년 9월과 2019년 9월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을 모아 페스티벌을 개최함.
 -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공연을 진행함.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마을의 주민들이 참석함. 2017년엔 페스티벌에서 공개한 영상이 덴마크예술재단에 수여하는 작품상을 받기도 함.
- 예술단체가 특정 마을에 투입되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술인과 주민들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됨.
 -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이전의 작품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주민들은 마을을 소개하고 현재 마을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역사적 이야기 등을 공유함. 이 과정을 통해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어떠한 작품 활동을 진행할지를 정하게 됨.
 - 또한 예술인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 만남을 통해 예술인들은 불편 없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받음.
- 예술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 활동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농촌이라는 공공의 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참여적인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농촌주민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이러한 생각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기회를 갖게 됨.

| 그림 3. 미팅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선상 공연 |



자료: ARTS IN RURAL AREAS, IETM (2020)



유럽의 농촌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 노력과 사례

6 시사점

- 위와 같이, 유럽에서는 문화예술 전문가 단체가 주도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촌주민들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함. 또한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됨.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
- 국내에서도 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의 문화 활동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국한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또는 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관광 상품화하려는 목적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유럽의 사례와 같이, 농촌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전문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창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 사업 구상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창안하여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더해 국내 농촌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 주도의 문화예술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IETM. 2020. 「ARTS In Rural Areas」. IETM PUBLICATION.